

(2017. 6. 24 시행) 서울시 7급 기출문제 [경제학(A 책형) 해설]

[김영식 선생님]

제일고시학원(중앙로점/충남대점) www.okpass.com

1. 답 ③

※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

- ㉠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Y재를 X재로 대체하면 할수록 X재 1단위당 Y재 수량(한계대체율)이 감소하는 현상
- ㉡ X재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X재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가 점점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것은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하여 (강)볼록하기 때문이다.

한편 옳지 않은 것을 고치면 다음과 같다.

- ① 이행성이 성립한다면 무차별곡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 ② 완전대체재의 무차별곡선은 우하향 직선이다.
- ④ 두 재화가 모두 비재화가 아님 경우만 원점에서 멀수록 더 높은 효용수준을 나타낸다.

2. 답 ④

(1) 본원통화의 구성과 화폐발행액

본원통화		
현금통화	지급준비금	
현금통화	시재금(예금은행 보유 현금)	지급준비예치금(중앙은행)
	화폐발행액	지급준비예치금(중앙은행)

(2) 협의의 통화(신  $M_1$ )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따라서 장롱의 현금이 보통은행의 계좌에 입금되면 본원통화는 현금통화가 시재금으로, 협의의 통화는 현금통화가 요구불예금으로 변하므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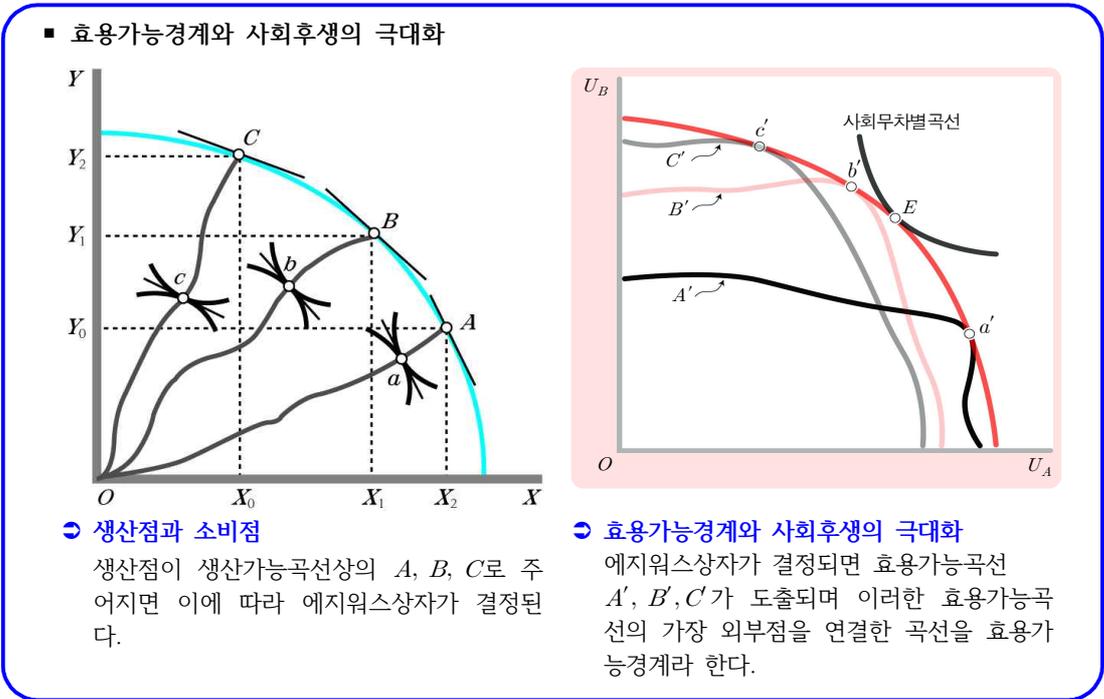
3. 답 ①

효용가능경계란 경제내의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을 때 얻어지는 개인의 효용의 쌍을 의미하므로 효용가능경계상의 모든 점에서는 파레토효율성(소비, 생산, 산출물 구성)을 모두 충족시킨다.

※ 산출물구성의 파레토효율성의 충족 조건

$$MRS_{XY}^A = MRS_{XY}^B = MRT_{XY}$$

즉,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와 생산가능곡선상의 기울기가 같아야한다.



4. 답 ①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研究開發)모형의 개념

연구개발모형에서는 한 경제의 기술수준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투입에 의하여 생산되므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기술진보는 지식(knowledge)의 축적에 의해 발생하며 지식은 한번 공개되면 그것을 공유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재산권이나 특허법 등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어느 정도의 배제가능성(excludability)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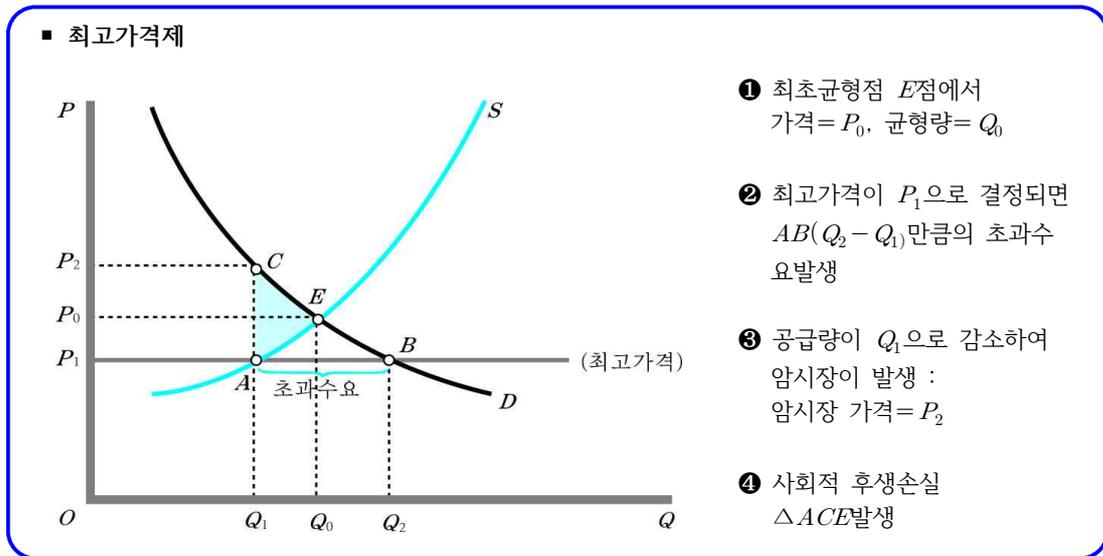
따라서 정부의 지원하의 연구개발등을 통하여 기술축적이 이루어지면, 재화생산 부문의 1인당 생산 함수가 지속적으로 상방 이동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

5. 답 ④

음악을 듣는 권리가 김 씨에게 있으면 김 씨는 이씨에게 50~100만원을 주면 두 사람의 효용이 증가한다. 이는 음악을 듣는 권리가 이씨에게 있어도 마찬가지 이므로 음악은 항상 재생된다. 따라서 ④이 옳지 않다.

6. 답 ①

아래그림에서 공급이 소폭 증가하면 초과수요가 감소하므로 자중손실이 감소한다.



7. 답 ③

디플레이션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디플레이션갭 = 완전고용국민소득( $Y_F$ ) - 실제총수요 =  $Y_F$ 수준에서의 수요부족

즉, 디플레이션은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측정되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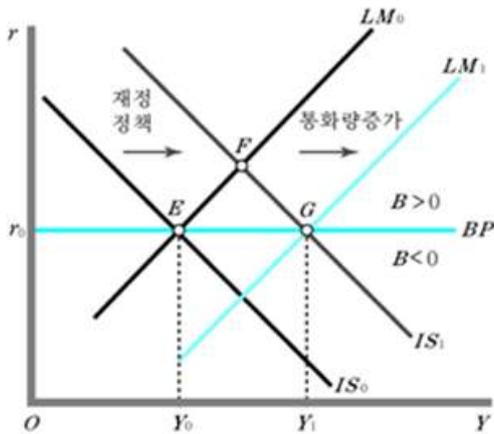
8. 답 ②

비교우위의 판정과 교역조건(교환비율)은 무역발생이전의 양국의 국내가격비인 기회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A국의 생산가능곡선이  $X=2-0.2Y$ 이므로 기회비용은  $1/0.2 = 5$ 이고, B국의 생산가능곡선이  $X=2-0.05Y$ 이므로 기회비용은  $1/0.05 = 20$ 이므로 5와 20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9. 답 ①

■ 고정환율제도에서의 재정정책(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 개방소국) : BP곡선 수평



➤ 확대 재정정책

- ▶ 최초의 균형점  $E(Y_0, r_0)$
- ㉠ 정부지출 증가
- IS곡선 우측이동( $IS_0 \rightarrow IS_1$ )
- 국제수지 흑자 (BP곡선 상방) : F점  
(즉, 이자율 상승 → 자본유입)
- 中央은행(㉡ 달러매입) → 통화량 증가
- LM곡선 우측이동( $LM_0 \rightarrow LM_1$ )
- 새로운 균형점 : G점( $Y_1, r_0$ )
- 효과적 (산출량 증가, 이자율 불변)

10. 답 ㉡

이 문제는 원래 위 가치와 아래가치가 같은 종류의 선택(즉, 광고, 시장진입, 가격인하 등)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B사는 위 가치를 선택하면 110이나 250이고 아래 가치를 선택하면 120이나 350이므로 A사는 B사가 아래가치가 우월전략인걸 알고 있으므로 A사는 위 가치를 선택하면 보수는 80이고 아래가치를 선택하면 보수는 50이므로 위 가치를 선택하여 균형은 (80, 120)이 된다.

11. 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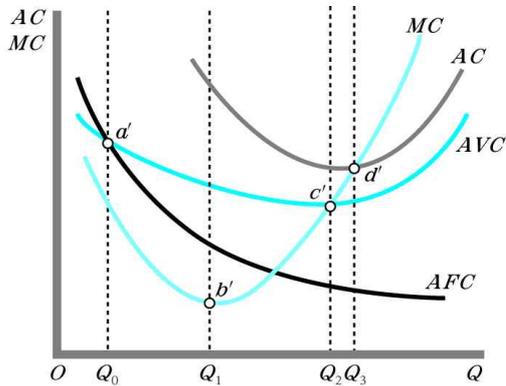
재정이 균형이면  $T=G$ 이고 상품수지가 균형이면  $NX=0$ 이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준식( $Y=C+I+G+NX$ )에 대입하면

$$5,000 = 250 + 0.75(5,000 - 5,000a) + 750 + 5,000a$$

$$\text{위식을 정리하면 } 5,000 = 250 + 3,750 + 1,250a + 750 \Rightarrow \therefore a = 0.2$$

12. 답 ㉣



㉣ 그림에서와 같이 평균가변비용최저점( $Q_2$ )이 평균비용최저점( $Q_3$ )보다 낮은 생산량에서 발생한다.

옳지 않은 것을 고치면 다음과 같다.

- ①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매몰비용이다.
- ② 위 그림처럼 최저점을 통과한다.
- ③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구간에서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13. 답 ④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따라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구하면 밀 소비자 판매 1,000억, 밀가루 800억, 그리고 빵 3,200억이므로 총합이 5,000억이다.

14. 답 ④

소비금액이 최대 5만원 이때, 효용의 총합이 최대가 되는 조합을 구한다.

형이 1만원, 동생이 4만원일 때 총효용은 60과 50의 합이 110이 되어 최대가 되므로 매일 동생에게 주는 금액은 4만이다.

15. 답 ①

※ **피셔의 방정식[Fisher's equation]**

명목이자율은 이번 기 실질이자율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더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text{명목이자율}(R_t) = \text{실질이자율}(r_t) + \text{기대 인플레이션율}(\pi_t^e)$$

※ **구매력 평가설의 변화율 표시**

$$\frac{\Delta P}{P} = \frac{\Delta e}{e} + \frac{\Delta P_f}{P_f} \quad \text{이 식을 다시 이항하여 정리하면}$$

$$\frac{\Delta e}{e} = \frac{\Delta P}{P} - \frac{\Delta P_f}{P_f}$$

(환율변화률 = 자국 물가변화률 - 외국 물가변화률)

◆ 국내물가가 10% 상승하면 환율은 10% 평가절하(환율인상)된다.

피셔의 방정식에 의해 명목이자율이 2%p 높은 A국이 B국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2%p 더 높고 구매력평가설에 의해 A국의 환율이 상승하여 통화가치가 2%p 떨어질 것이다.

16. 답 ③

※ 신고전학파의 투자결정이론

투자는 자본의 사용자비용( $C = (r + d)P_K$ :  $r$ (실질이자율),  $d$ (감가상각률),  $P_K$ (자본재 가격)과 자본의 한계생산물 가치  $VMP_L = MP_L \times P$ 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1)  $r$ (실질이자율)이 10%일 때 초기자본량은

$$MP_L \times P = (r + d)P_K \Rightarrow (50 - 0.1K) \times 200 = (0.1 + 0.05) \times 10,000 \therefore K_0 = 425$$

2)  $r$ (실질이자율)이 5%일 때 적정자본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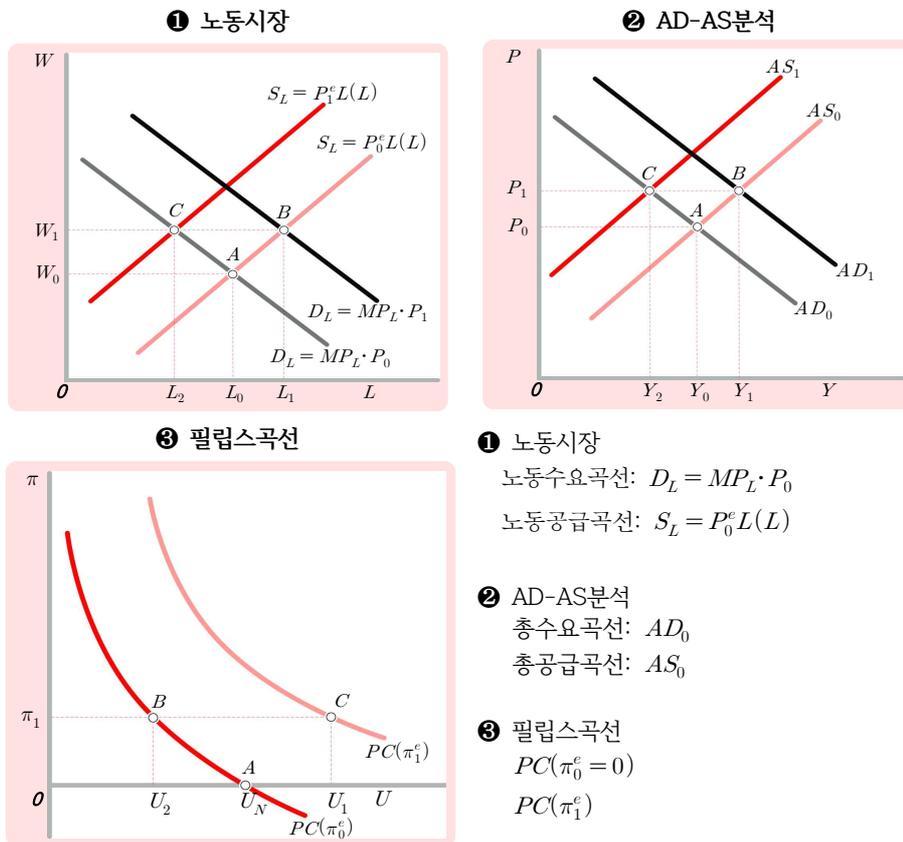
$$\Rightarrow (50 - 0.1K) \times 200 = (0.1 + 0.1) \times 10,000 \therefore K_1 = 450$$

따라서  $450 - 425 = 25$ 만큼 투자는 증가한다.

17. 답 ③

❖ 실제물가 상승과 예상(기대)물가 상승의 효과

■ 실제물가 상승과 예상(기대)물가 상승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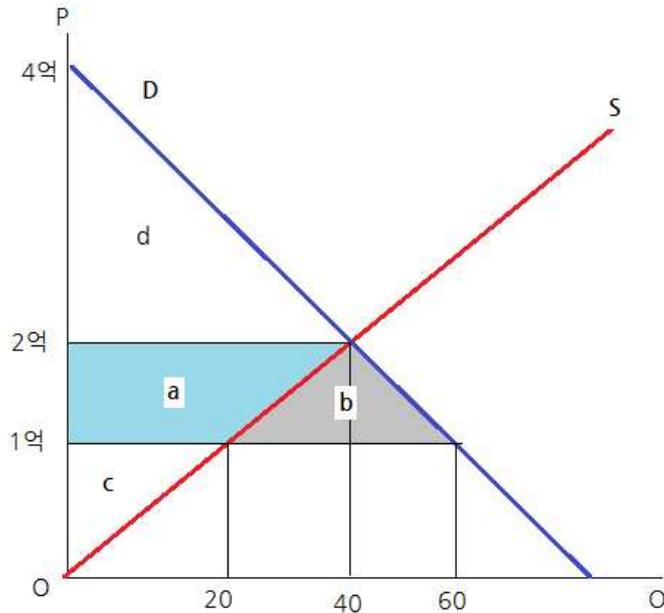
	노동시장	AD-AD분석	필립스곡선
실제물가 상승 ( $P_0 \rightarrow P_1$ )	노동수요곡선의 우상방이동 ( $A \rightarrow B$ )	AS곡선 상의 우상방이동 ( $A \rightarrow B$ )	필립스곡선 상의 좌상방이동 ( $A \rightarrow B$ )
예상(기대)물가 상승 ( $P_0^e \rightarrow P_1^e, \pi_0^e \rightarrow \pi_1^e$ )	노동공급곡선의 좌상방이동 ( $A \rightarrow C$ )	AS곡선의 좌상방이동 ( $A \rightarrow C$ )	필립스곡선의 우상방이동 ( $A \rightarrow C$ )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치면 다음과 같다.

- ① 공급충격은 A에서 C로 움직이므로 상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합리적 기대 하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정책은 일시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은 실제실업률을 하락시킬 수 있다.
- ③ 옳은 보기이다.
- ④ 확대제정정책은 필립스 곡선상의 이동이다.

18. 답 ③

주어진 조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공급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므로 비례적 관계가 성립하여 다음과 같다.



- ① 소비자잉여 증가분(a+b)는 생산자잉여 감소분(a)의 2배 이하이다.
- ② 사회적잉여 증가분(b)는 생산자잉여 감소분(a)보다 작다.
- ③ 이전 소비자 잉여(d)는 40, 개방 후 소비자 잉여(a+b+d)는 90이므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9. 답 ④

카르텔의 이윤극대화는 독점과 동일하므로 수요함수는  $P = -2Q + 64$  따라서  $MR = -4Q + 64$

이윤극대화 조건  $MR = MC$ 를 적용하면  $-4Q + 64 = 24 \Rightarrow \therefore Q = 10, P = 44$

총수입은  $P \times Q = 44 \times 10 = 440$ , 총비용은 고정비용이 없으므로  $MC \times Q = 24 \times 10 = 240$

2017. 기출문제 해설

따라서 총이윤은  $440 - 240 = 200$ 이다.  
그러므로 한 개 기업의 이윤은 100이다.

20. 답 ㉔

재정정책은 총수요관리정책이므로 자연산출량을 증대 할 수 없다.